



남극의 쇼프



남극의 쇼프

解説・監修：神田勝一、原稿：西村博「『面白角替料理人』(新潮文庫)、『面白角替料理人 築う食卓』(新潮文庫)、喜劇・脚本・監修：鶴見辰吾、主題歌：スニーコーン「ザラウンド」(オムニバスCD)。写真：(左)西村勝一、(右)スニーコーン

堺雅人 生瀬勝久 きたろう 高良健吾 豊原功補
西田尚美 古館宽治 黒田大輔 小浜正案 小野花梨 小出早瀬 宇梶刚士 岛田久作



맛있는 요리로 이어지는 휴먼 코미디



남극의 셰프

堺雅人 生瀬勝久 きたろう 高良健吾 豊原功補
西田尚美 古賀 寛治 黒田大輔 小浜正寛 小畠花梨 小出早職 宇梶剛士 岩田久作



The Chef of South Polar, 南極料理人, 2009

장르드라마 / 코미디

국가: 일본

등급: 전체관람가

러닝타임: 125분

평점: 7.6

누적관객: 3,709명

배급 및 수입: (주)스폰지이엔티



해발 3,810m, 평균 기온 -54도의 극한지인 남극
돔 후지 기지. 귀여운 펭귄도 늄름한 바다표범도 심
지어 바이러스조차 생존할 수 없는 이곳에서 8명의
남극관측 대원들(기상학자, 빙하학자, 빙하팀원, 대
기학자, 통신담당, 의료담당, 조리담당 등)이 1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는 이야기



평범한 일본 가정식에서부터 때로는 호화로운 만찬 까지 언제나 대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남극의 쉐프 니시무라는 전 대원이 함께 모인 맛있는 식사시간에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볼 때가 가장 기쁘다.

대원들 역시 니시무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일한 낙. 하지만 무려 14,000km나 떨어진 일본에 있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어한다.

- 실제 남극관측 대원으로서 조리를 담당했던 니시무라 준의 에세이 "재미있는 남극요리인"을 영화화한 작품.



- 극한의 남극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완성된 <남극의 쉐프>는 웃음과 사랑이 풍성한 식탁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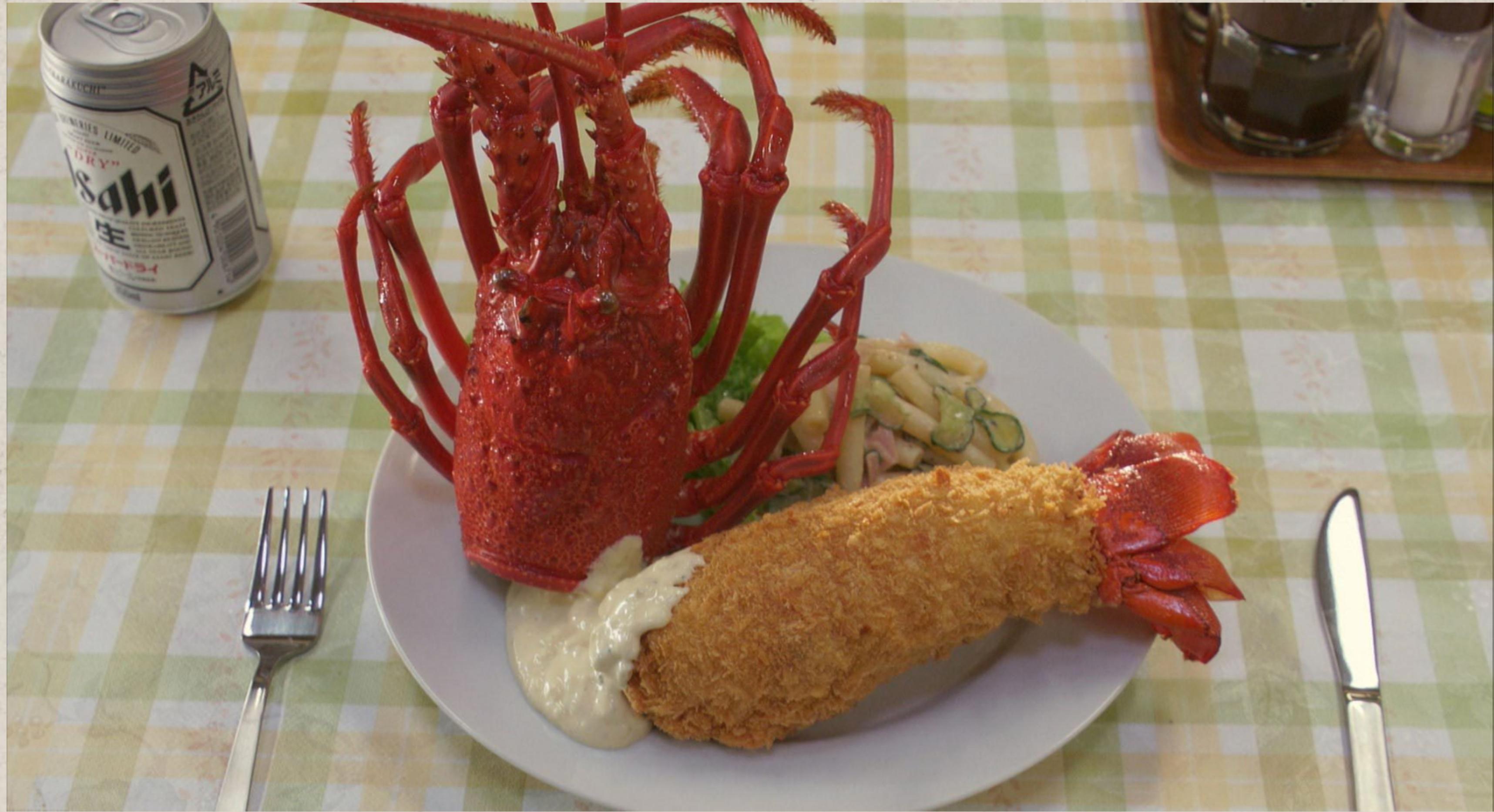














활동 순서

1. 영화 감상하기(3차시)
2. 생각과 느낌 공유하기(1차시)
 -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 물, 음식, 외로움, 협동, 의식주, 날씨
 - 우리의 미래는?
 - >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물과 식량 부족



-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 물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
-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이다.
-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 누구나 모두 먹는 것에 진심이다.
- 어디서나 사람 사는 건 별거 없다.
- 가족, 음식(특히 물)은 없으면 안된다.
- 정말 불편하겠다. 나라면 절대 안간다.
-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 외로운 것은 참기 힘들다.
- 남극의 날씨는 추운 게 맞다.
- 남극에서 못 본 펭귄을 일본에서 보는 게 웃긴다
- 펭귄이 불쌍하다. 펭귄은 잘 살고 있을까?
- 남극에서 영화를 찍은 사람들도 대단하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힘을 합하면 살 수 있다.



-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 물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
-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이다.
-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 누구나 모두 먹는 것에 진심이다.
- 어디서나 사람 사는 건 별거 없다.
- 가족, 음식(특히 물)은 없으면 안된다.
- 정말 불편하겠다. 나라면 절대 안간다.
-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 외로운 것은 참기 힘들다.
- 남극의 날씨는 추운 게 맞다.
- 남극에서 못 본 펭귄을 일본에서 보는 게 웃긴다
- 펭귄이 불쌍하다. 펭귄은 잘 살고 있을까?
- 남극에서 영화를 찍은 사람들도 대단하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힘을 합하면 살 수 있다.



활동 순서

3. 지역기반 세계시민교육(2차시)

- 군산 금강미래체험관

-> 생물다양성 감소(철새 개체 수)

- 무주 반디랜드

-> 기후변화(반딧불)

4. 관련 자료 읽어보기(선택)



전북을 품고 세계로 가는

전북형 세계시민교과서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고장 속으로					세계시민 & 세계시민교육이 뭐예요? 1
					전북엔 어떤 고장이 있을까? 3
1	전주	지속가능한 소비	지구를 위한 다시 보기	새활용센터 다시봄 5	
2	군산	생물다양성	철새들의 쉼터	금강미래체험관 9	
3	익산	물 생태계	소중한 우리의 강 이야기	만경강문화관 13	
4	정읍	평등과 자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꿔요	전봉준 유적지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17	
5	남원	양성평등	춘향이야기와 양성평등	춘향테마파크 21	
6	김제	평화	문학 속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 이야기	아리랑문학마을 25	
7	완주	푸드 마일리지	건강, 농업,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	로컬푸드 29	
8	진안	물과 발전	높고 평평한 땅, 보존과 개발의 두 얼굴	용담댐 33	

9	무주	기후변화	반딧불과 함께 빛나는 마음	반디랜드 37
----------	----	------	-------------------	------	----------

10	장수	지역화와 협력	한우와 사과는 어떤 사이일까?	한우랑사과랑축제 41
-----------	----	---------	------------------	----------	----------

11	임실	지속가능한 농업	모두가 살만한 세상	치즈테마파크 45
-----------	----	----------	------------	--------	----------

12	순창	지속가능한 식량	미래의 식량을 찾아서	푸드사이언스관 & 발효소스토굴 49
-----------	----	----------	-------------	------------------	----------

13	고창	세계유산과 생태계 보호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과 생태지역	고인돌 유적 & 운곡람사르습지 53
-----------	----	--------------	----------------------	------------------	----------

14	부안	에너지	올바른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 57
-----------	----	-----	------------	--------------	----------

	세계 속으로	우리는? 전북의 세계시민!	세계시민의 눈으로 전라북도를 바라보아요! 61
			세계시민이 되어 전라북도를 여행해요! 63

	부록	영상으로 만나는 세상 65
		세계 속의 그 날들 67
		참고자료 및 사이트 69



전북엔 어떤 고장이 있을까?



① 전주



전주는 전라북도청이 있는 곳으로 주변 자연환경은 기린봉, 고덕산, 남고산, 모악산, 완산칠봉 등의 산이 있고, 전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② 군산



군산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항구도시입니다. 금강, 금만경 평야가 서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③ 익산



익산은 전북 서북쪽에 있습니다. 천호산, 미륵산, 함라산 등의 산이 있고 금강, 만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④ 정읍



정읍은 내장산 국립공원과 임암산이 있고 동진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진강과 정읍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 2 >

철새들의 쉼터 - 생물 다양성 -

금강미래체험관
군산

 금강을 찾아오는 철새가 줄어든 이유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철새는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곳과 추운 겨울을 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길을 날아서 이동하는 새를 말합니다. 철새는 추위를 피하고, 또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떼를 지어 먼 거리를 오갑니다. 철새의 한 종류인 가장오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북쪽인 시베리아에서 알을 낳고 살다가 겨울이 오면 바다를 건너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금강미래체험관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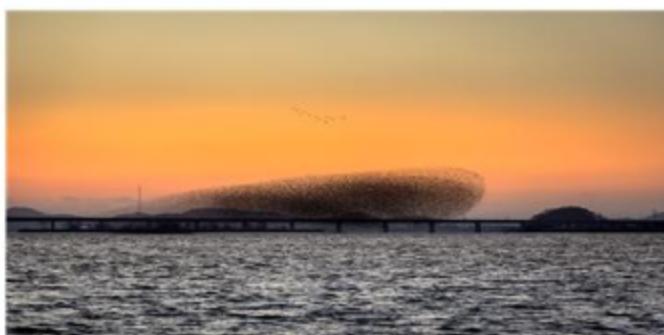
금강미래체험관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날아오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금강 주변 갈대밭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엔 철새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관, 전망대, 조류공원, 식물생태관, 부화체험관이 있습니다. 11층 전망대

에서 사람들은 철새들이 살아가는 장면을 관찰하면서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에 찾아오는 철새와 새들의 신체 기관 등 철새에 대한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들의 서식지인 갯벌을 땅으로 만드는 간척사업 때문에 철새들이 먼 길을 날아와도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식지를 잃은 철새들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개발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종류의 새들이 찾아오도록 금강의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떼지어 이동하는 철새



가창오리 떼

■ 세계시민사전



* 서식지란?

생물이 살아가는 곳

* 생물 다양성이란?

생물의 종류, 생물 종류에 따른 특징,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양한 것



'세계시민'이 되어 함께 해결해보아요

1. 사람들의 개발로 인해 철새들의 가 파괴되었습니다.

다. 철새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로 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2.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봅시다.

생물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 강, 바다, 극지방, 초원, 사막
생물 종류에 따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자, 호랑이, 물고기, 새, 나무, 꽃 등 다양한 생물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도 여러 종류가 있고 사람도 생김새가 다르다.

3. 철새들은 겨울을 지내기 위해 금강까지 먼 길을 날아옵니다. 그런데 갯벌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오염되어서 먹이가 부족하고 살 곳이 없어진다면, 철새들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봅시다.

만화로 톡톡!



영상으로 한번 데!



생태다양성의 보고,
한국의 갯벌



가장오리 떼의
'화려한 군무'…
경이로운 모습 오래 보려면

이 날을 기억해요!

생물 다양성의 날 (5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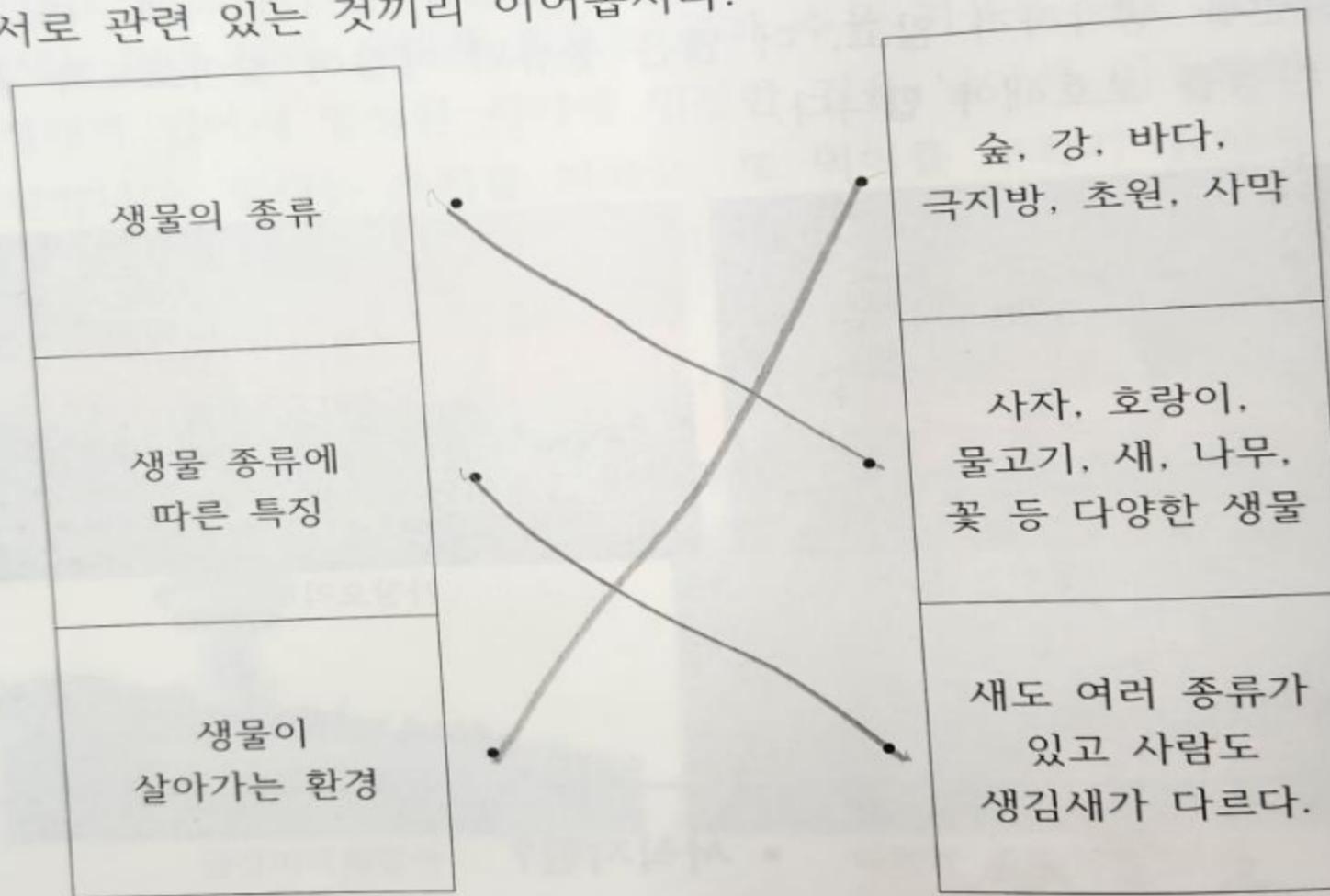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과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연합(유엔)이 정한 기념일입니다.



'세계시민'이 되어 함께 해결해보아요

- ❖ 사람들의 개발로 인해 철새들의 **나****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철새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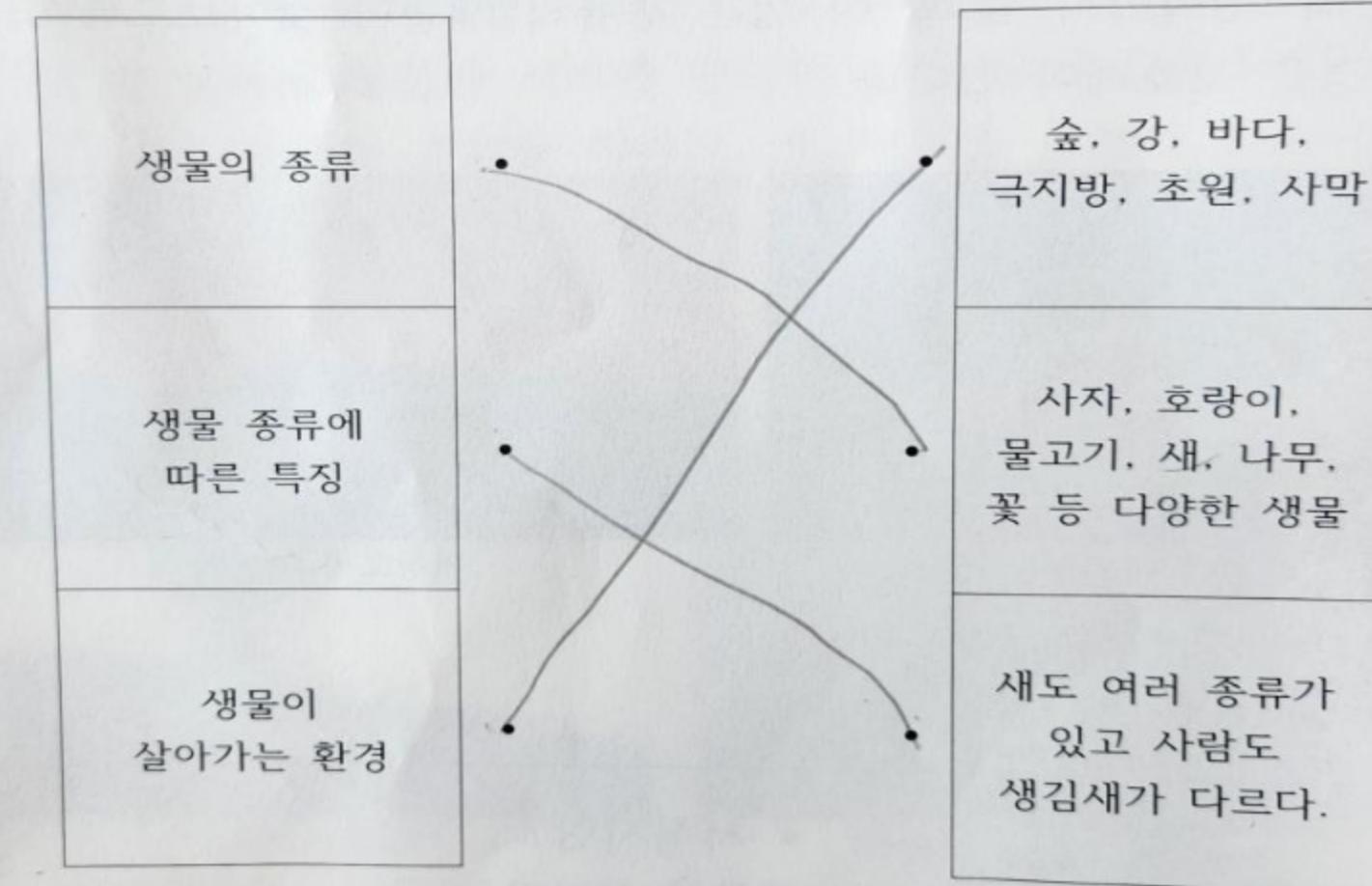
- ❖ 철새들은 겨울을 지내기 위해 금강까지 먼 길을 날아옵니다. 그런데 뜻들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오염되어서 먹이가 부족하고 살 곳이 없어진다면, 철새들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봅시다.

불행한 마음, 미안한 마음



'세계시민'이 되어 함께 해결해보아요

- ❖ 사람들의 개발로 인해 철새들의 **나****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철새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봅시다.



- ❖ 철새들은 겨울을 지내기 위해 금강까지 먼 길을 날아옵니다. 그런데 뜻들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오염되어서 먹이가 부족하고 살 곳이 없어진다면, 철새들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봅시다.

슬프다 / 화나다 / 배고프다

<9>
반딧불과 함께 빛나는
- 기후변화-

반디랜드
무주

🔍 반딧불이가 천연기념물인 이유와 무주에서 반딧불이 서식지가 유명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1982년 11월, 무주군 설천면에 사는 반딧불이와 먹이(다슬기)는 천연기념물 제322호가 되었습니다. 무주군은 1997년부터 반딧불 축제를 열어서 무주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알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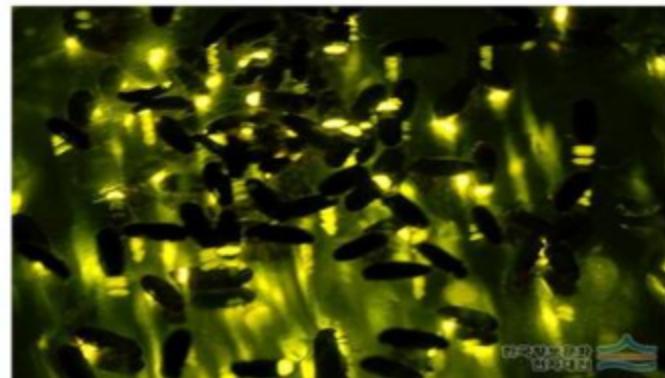
무주 반디랜드

반딧불이는 옛날 사자성어인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주인공입니다. 형설지공은 반딧불이의 꼬리 불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반사되는 빛으로 공부해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반딧불이의 빛으로 공부할 만큼 옛날에는 반딧불이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반딧불이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오히려 무주의 깨끗한 자연을 대표하는 곤충이 되었습니다. 반딧불이는 아주 깨끗한 곳에만 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곤충’입니다. 따라서 무주의 반딧불이와 그 서식지, 먹이인 다슬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무주 반딧불이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은 반딧불이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주 설천면 주변에 가장 많은 반딧불이가 살고 있지만,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반딧불이를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시메뚜기, 말매미 등의 곤충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지표 곤충과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처럼 주변의 곤충들로 기후변화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신기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러한 곤충들이 사라지는 미래는 오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 세계시민사전



* 천연기념물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법으로 정해서 보호받는 자연물 (식물, 동물, 지형 등)



'세계시민'이 되어 함께 해결해보아요

1. 반딧불이와 같이 아주 깨끗한 곳에 살아서 깨끗한 환경인지 알려주는 곤충을 이라고 합니다.

2. 이 캐릭터는 무주 반디랜드 캐릭터인 '형설지공'입니다. 나만의 반딧불이 캐릭터를 표현하고 설명을 적어봅시다.



3. 내가 표현한 반딧불이 캐릭터를 친구들에게 소개해봅시다.

만화로 톡톡!



영상으로 한번 데!



무주 반딧불 축제



우리의 특별한 친구,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이 날을 기억해요!

세계 기상의 날 (3월 23일)



세계기상기구가 국제연합(유엔)의 전문기구로 지정되고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이날에는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 등 여러 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12월의 계기수업 자료 같이 알아보기

로알 아문센, 최초로 남극점 도달

01 | 남극점을 향한 위대한 도전

15세기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남쪽에 어미어마하게 큰 대륙이 존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극 대륙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1819년에 남쪽으로 항했던 러시아의 탐험가 벨링스하우젠이었습니다. 그의 발견 이후 지구 자연속의 끝 남극점에 과연 누가 먼저 도달할 것인지를 두고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 지구 최남단으로 향하다

노르웨이 출신의 극지 탐험가 로알 아문센(1872~1928)의 오랜 목표는 인류 최초의 북극점 도달이었지만 미국인 탐험가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면서 북극과 정반대인 남극으로 방향을 돌았습니다. 1911년 1월 14일, 프랑호를 탄 아문센과 그의 대원들은 유빙을 헤치고 나아가 남극의 '로스 빙붕'에 상륙했습니다. 이곳에는 열흘 전, 이미 로버트 스콧이 이끄는 영국의 탐험대가 남극점 정복을 위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양국 탐험대는 각각 기지를 세웠는데, 아문센의 기지가 스콧의 기지보다 남극점에서 100km가량 더 가까웠습니다.

곳곳에 보급 창고를 세우고 남반구의 여름이 가까워지는 시점까지 기다린 아문센 일행은 10월 20일, 남극점을 향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스콧은 그보다 조금 늦게 다른 경로로 출발했습니다.



● 혹독한 환경에 맞서다



남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문센 탐험대는 흑련의 눈보라 속에서 온 몸이 아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개 살매로 매일 수십 km씩 달려 나갔습니다. 덕분에 출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마지막 보급 창고가 세워져 있는 남위 85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달려 온 거리만 무려 950km였습니다.

그러나 높이 3천m에 달하는 거대 산하와 맞닥뜨리며 또다시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위험천만한 빙산을 오르던 중 눈에 가려진 크레비스(Crevasses, 빙하 표면에 생기는 깊은 균열)를 잘못 밟아 죽을 뿐만 고비를 넘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 탐험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거우 고비를 넘긴 이들은 당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세웠던 최고 기록인 남위 88도 23분을 돌파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12월 14일, 남극점에 도달한 아문센은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에 국기를 꽂고 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간, 남위 84도에 다다르고 있었던 스콧의 탐험대는 것은 고생 끝에 아문센의 탐험대보다 한 달여 늦게 남극점을 밟았습니다. 현재 남극점에는 아문센과 스콧의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딴 미국의 연구 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세계에서 가장 춥고 건조한 남극은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달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원주민조차 살고 있지 않았던 이 땅에 인간이 첫발을 딛은 것은 19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남위 90도의 남극점을 정복하면서 본격적인 남극 탐사가 시작했습니다. 남극점 도달을 위한 아문센 탐험대의 험난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 최남단의 땅 '남극'의 현재를 살펴봅니다.



아문센과 탐험대의 남극점 도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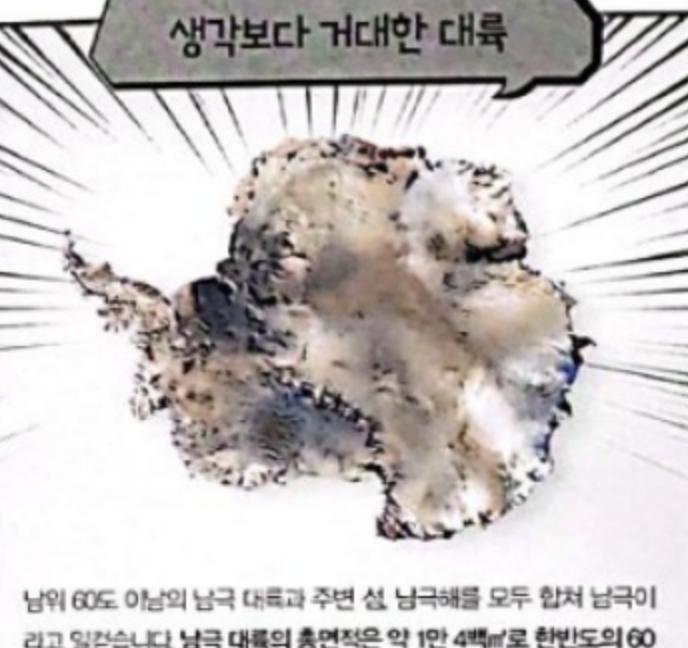
목적을 달성한 아문센은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남극점 도달이라는 한 가지의 분명한 목표와 북극의 이누이트족에게 전수 받은 노하우, 현지 환경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 추위에 강한 그린란드 씨름기연으로 구성된 대 쟁매와 스キー를 주력 이동 수단으로 이용
- 이누이트족이 종종 입는 털가죽 방한복과 장화를 착용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
- 강철한 간식마다 고비를 미리포장 및 저온소를 만들고, 불필요한 장비는 과감히 폐기
- 고기로 가루로 빻아 굳힌 페미린을 차운 열량은 공급받지 부피는 줄이고, 부족한 식량은 현지 동물을 사냥해 보충



남극 베이스캠프에서의 아문센 탐험대

*사진: 웨이미디어



세계에서 가장 춥고 건조한 땅

남극은 계절별로 기온 차가 심한데, 내륙 고원 지대는 겨울철에 영하 70도까지 기온이 내려갑니다. 같은 극지방인 북극의 겨울 최저 온도가 영하 40도인 것을 감안하면 남극이 매우 춥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남극 대륙의 고도가 높은 데다가 표면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1983년 남극의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에서는 영하 89.6도가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남극의 각 기지에서 관측되는 최고 온도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실정입니다.

또 남극 대륙은 연평균 강수량이 200mm가 채 되지 않아 매우 건조 합니다. 시각을 구분 짓는 기준이 연평균 강수량 250mm 이하이기 때문에 남극은 '하얀 사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극한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



웨들해표

먹이 사냥을 위해 깊은 바닷 속으로 잠수하여 1시간가량 머무릅니다. 말이 되어야 하는 욕자에서는 기가니 굴러서 이동합니다.



황제펭귄

겨울 남극에서 양을 낳고 양육하는 유일한 동물로 친환경을 합니다.

지의류

군체와 조류가 만나 공생하는 생물입니다. 강연한 생명력으로 어디서든 잘 서식하지만 1년에 겨우 1m 자랄 정도로 성장이 매우 느립니다.



남극은 생물이 생존하기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서식 가능한 종과 그 번식력이 제한적입니다. 남극을 대표하는 동물로는 황제펭귄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갈매기와 앤버트로스 종의 조류가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포유류로는 대왕고래와 남방코끼리를 범, 남극물개, 웨들해표 등이 있는데 이 남극 동물들의 주된 먹이는 남극해에 서식하는 크릴새우입니다.

남극에는 식물이 거의 없지만 몇몇 삼에서는 이끼류나 물속에서 포자로 번식하는 조류, 조류와 균류가 합쳐진 지의류가 자리기도 합니다. 또 드물게 남극종세풀, 남극개미자리 등 꽃을 피우는 종자식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 위키미디어, 픽사베이

세계 여러 과학 기지가 모여 있어 마치 작은 마을처럼 보이는 남극은 지구상 유일하게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남극이 인류의 공동 연구 구역이 된 과정과 남극 연구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한 남극 조약

남극 대륙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세계 각국은 남극과의 지리적 인접성, 남극 대륙을 발견한 공·포경업 등을 언급하여 임대하여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남극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극 연구를 함께하기 위해 1959년 12월 1일, 미국 워싱턴에 모인 12개국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남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961년 6월에 발효된 남극 조약은 1991년에 협정한 '환경 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 의정서'에 따라 관련 조치가 연장되어 현재 2048년까지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1980년에 세계 33번째로 남극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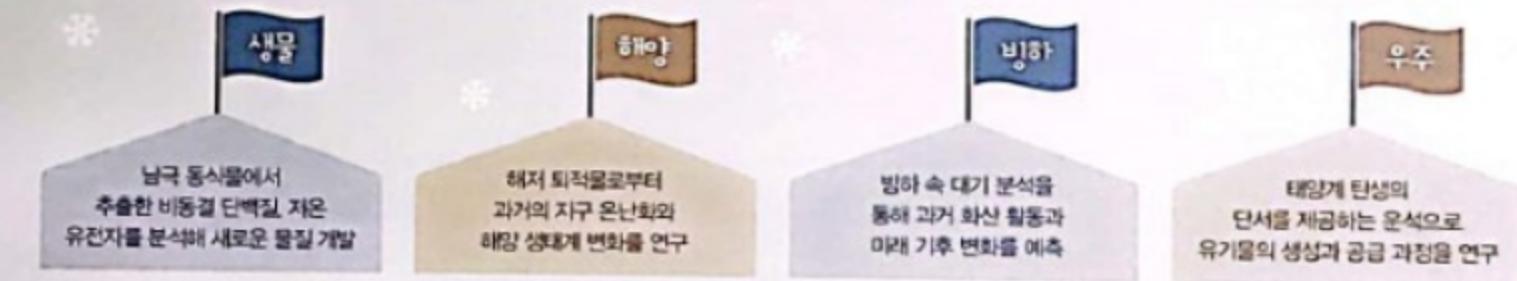
남극 조약의 주요 내용

- 남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 남극 대륙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군사적 조치는 금지된다.
- 남극 대륙에서의 과학적 조사와 이를 위한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
- 과학적 관측 및 결과를 고환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남극 지역에서 모든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은 금지된다.



지구의 비밀을 밝히는 남극 연구

오염되지 않은 생태계와 수십만 년 전 눈과 얼음을 간직한 남극은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남극에 과학 기지를 세워 생물, 해양, 지질, 빙하, 우주 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소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 대륙의 서남쪽 킴조지섬에 있는 이 기지는 우리나라 남극 진출의 빛만을 마련한 곳입니다. 약 18명으로 구성된 월동 연구대가 1년 동안 상주하여, 어름철에는 100여 명의 하계 연구대가 파견되어 각종 연구를 수행합니다.

- 주요 업무 : 기후 변화 연구, 남극 생태계 자료 수집, 기상 관측, 남극 연안 환경 모니터링



남극장보고과학기지

2014년 2월,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4,500km가량 떨어진 곳에 들어선 우리나라 두 번째 남극 기지입니다. 이곳은 남극 대륙의 중심과 해안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더욱 폭넓은 분야의 극지 연구가 가능합니다.

- 주요 업무 : 운석 탐사, 대기 과학 및 극지 융복합 연구, 로스해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사진 : 위키미디어

남극의 쇼프

解説・監修：沖田一、原作：西村京子「西村京子料理人」（新潮文庫、新潮社刊）、「西村京子料理人 美う食卓」（新潮文庫刊） 監修：岡部義晴、主題歌：ユニコーン「ザラウンド」（ユニバーサルミュージック）

堺雅人 生瀬勝久 きたろう 高良健吾 豊原功補
西田尚美 古賀寛治 黒田大輔 小浜正美 小野花梨 小出早瀬 宇梶剛士 岸田久作



맛있는 요리로 이어지는 휴먼 코미디



남극의 쇼프

解説・監修：神田勝一、原稿：西村博「『面白角替料理人』(新潮文庫)、『面白角替料理人 築う食卓』(新潮文庫)、喜劇・脚本・監修：鶴見辰吾、主題歌：スニーコーン「ザラウンド」(オムニバスCD)。写真：(左)西村勝一、(右)スニーコーン

堺雅人 生瀬勝久 きたろう 高良健吾 豊原功補
西田尚美 古賀寛治 畠田大輔 小浜正美 小野花梨 小田早織 宇垣剛士 岩田久作



어쩌면 우리의 미래



남극의 쉐프

脚本・監督：沖田卓一 演出：西村洋「面白本場料理人」(新書出版)著者：「面白本場料理人 笑う食卓」(新書出版)著者：同上 著者：ユニコーン「サラウンド」(オーディオカード)
プロデューサー：栗原義一 サイレントディレクター：佐藤信一、高野・芦野和子、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
音楽：スコット・マーフィー 音楽監修：栗原義一、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
小道具：アーティスト：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栗原・吉田裕二
企画・制作：株式会社面白本場

堺雅人 生瀬勝久 吉たろう 高良健吾 豊原功補
西田尚美 古館宽治 黒田大輔 小浜正美 小野花菜 小出早恵 宇梶刚士 稲田久作



이정도면
행복한 미래



남극의 쉐프

脚本・監督：沖田卓一 演出：西村洋「面白本場料理人」(原著脚本・脚本制作)：「面白本場料理人 笑う食卓」(原著脚本)：著者：同上 脚本：生垣政典 ユニコーン「サラウンド」(オーディオカード)
プロデューサー：原田尚美 サイレントディレクター：佐藤信徳、猪野・芦野和子、猪野・吉野和也、猪野・吉野和也、猪野・吉野和也、猪野・吉野和也、猪野・吉野和也、猪野・吉野和也、猪野・吉野和也、猪野・吉野和也
音楽：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
撮影：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
編集：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
小道具：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猪野和也
企画・制作：株式会社面白本場

堺雅人 生瀬勝久 吉たろう 高良健吾 豊原功補
西田尚美 古館宽治 黒田大輔 小浜正美 小野花菜 小出早智 宇梶刚士 稲田久作

우리 뭐 먹으려
남극에 온 거 아니거든?!



펭귄도, 바다표범도 없는 이곳에... 외로운 아저씨들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THE END